

지방행정혁신 평가 국무총리상 受賞

의정부시 '시소(SISO)' 혁신운동 성과

의정부시가 2005년 전국 지방행정혁신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상금10억)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방행정혁신의 성공적 확산 및 실천을 위해 전국 250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혁신역량 7개 분야, 혁신과제 11개 분야와 고객만족도를 평가했다.

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중심의 평가에서 2005년 한해동안 고객인 시민을 위한 전국 최고의 지방행정을 수행한 우수 기관으로 평가된 의정부시는 그동안 고객감동 행정을 위해 "일어나서 웃으며 시민을 맞이하는 혁신조직이 되자"는 '시소(SISO)' 혁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또한, 내부혁신의 불을 지피고자 혁신토론 소모임인 '주니어보드팅'을 운영하여 신세대 직원의 아이디어를 모아 시책에 반영하



의정부시가 2005년 전국 지방행정혁신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상금10억)을 수상했다. (사진: 김희정 기자)

는데 주력했다.

혁신마인드 확산을 위해 "일 못하고 짜증나는 의정부시 만들기" 역발상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연극공연을 통한 직원들의 자

발적인 혁신을 유도하는 등 지방행정혁신 내부인프라 조성에 힘썼다.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혁신을 추구하고자 의정부의 새로

운 시도로 도로상에 산재해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했다.

주5일 근무에 따른 시민의 여가공간 조성을 위해 17년 동안 흥물로 자리 잡고 있던 포장마차 집성촌 102개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작동공원 및 추동공원 등 메트로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한편, 군사도시 미군기지 등 좋지 못한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여 대전차 방어벽을 철거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에 탁월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의정부는 2006년에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혁신 추진에 박차를 가해 전국 최고의 웰빙도시를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경기북부지역 관광지에 65억 投資

관광지별로 특성화, 차별화 된 개발사업 추진

경기도 제2청은 노후시설로 인한 관광객의 위험요인 및 불편해소와 현대적 관광개념에 맞는 시설도입을 통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6년도에 7개소의 관광지개발에 총 65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관광지별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4계절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82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산정호수에는 볼거리제공을 위한 분수대와 인조암 및 조명시설이 설치되고, ▶중앙아시아 고원지대에 위치한 몽골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수동관광지에는 몽골의 전통가옥인 게르(Ger) 15동을 만들어 관광객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여 몽골의 전통문화를 온몸

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주5일 근무시행에 따른 가족단위 관광·레저 수요 급증과 테마 중심의 체험·교육관광 비중의 확대에 발맞추어 장흥관광지에는 이용객들이 조각작품을 감상하고 직접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조각아카데미를 조성하여 가족단위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사계절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수해와 관광객을 유인하는 중심테마 부재로 관광지의 위상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한탄강관광지에 대하여는 수해로부터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성토사업과 어린이 캐릭터원, 건강지압원 등을 조성하여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선사유적지등 문화·관광자원과 연계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의 작은 소금강인 소요산에는 문화전시관을 건립하여 역사를 접목한 관광자원을 확보하여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로했으며, 공릉관광지 및 백운계곡관광지는 노후한 기반시설(펜스·통신시설교체, 화장실 신축 등)을 보수 및 정비한다.

이와 관련하여 도 관계자는 "최근의 관광 행태는 ▶과거 수동적·정적인 관광형태에서 능동적·적극적인 관광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주5일 근무제의 본격시행으로 직

장 중심의 생활패턴에서 가족중심의 생활패턴으로, ▶일일관광에서 체험형·테마형의 숙박관광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므로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관광시설의 보완 및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 내년도에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내년도에 많은 관광객이 북부지역의 관광지를 찾아와 줄 것을 당부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경기도민회 장학생 선발 내달 10일까지 500명 접수

경기도민회 장학회는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생 선발인원은 500명으로 대학생 205명, 전문대생 55명, 고교생 165명, 수험생 5명, 체육특기생 20명, 예능특기생 20명, 방통대생 30명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로 거주지 시·군민회 사무실에서 접수하면 된다.

장학생 선발은 오는 3월 15일 확정되며 경기도민회 장학회 홈페이지에 공지에 공지되며, 장학증서 및 장학금 지급은 장학생 추천권자가 전수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민회 장학회 홈페이지(www.ggjh.co.kr)에서 다운로드 및 첨부하면 되며, 경기도민회 장학회로 문의(02-2055-2320, 2322)하면 된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사당춤·북춤·장고춤 등 民族춤 전수

의정부시무용단 강금순 조선민족가무단 조교 초빙



의정부시무용단(단장 이미숙)은 지난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조선민족가무단에서 40여년 동안 민족춤을 전수해

온 강금순(74·사진)선생으로부터 사당춤, 북춤, 장고춤, 목동과 처녀, 환희 등의 작품을 사사 받고 있다.

8일 취재차 방문한 의정부시무용단 연습실에서 강금순 선생은 74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밝은 미소로 어려운 동작을 따를 줄이며 전수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강 선생은 어린시절 당대 최고의 무용수로 알려진 월북 무용가 최승희 선생으로부터 춤을 사사했다. 당시 최승희 선생은 북한 국립예술극장 총장으로 강 선생은 국립예술극장 무용수로 활동하여 자연스럽게 춤을 배울 수가 있었다.

이날 오전내내 전수한 춤은 사당춤이다. 사당춤은 남사당패들이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논두렁에서 흥겹게 풍년을 기원하며 놀던 모습을 춤으로 만든 작품이다. 경쾌하고 빠른 가락에 맞춰 추는 춤사위가 불만이다.

이처럼 전통에 통하지 않고 일상 소재를 작품으로 제작해 이를 전수하고 보급해 왔다고 한다.

매년 1회씩 최승희 대공원에 참가했다는 강 선생은 "최승희 선생은 당대의 춤꾼으로서 모든 권력을 가졌으나 한번 비판의 대상이 되면 서 급격히 그 인기가 떨어졌다"고



강금순 조선민족가무단 조교가 의정부시무용단 단원들에게 사당춤을 전수한 후 단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회고한다.

평양에는 당시 3개의 극장이 있었다고 한다. 국립예술극장, 국립무용극장, 국립민족예술극장 등이다. 강 선생은 이 3개 극장 중 국립예술극장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34세때 중국 장춘으로 가 조선민족가무단에서 민족춤을 전수하는 조교로 활동했으나 국적이 북한으로 되어 있어 여러 가지 행동의 제약이 받았던 강 선생은 지난 1994년 '죽기전에 서울에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에서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한다.

강 선생은 "의정부시무용단 단원들은 춤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지만 그 맛을 내기에는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춤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따

라서 동작 하나 하나의 의미를 잘 새겨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시로 써서 시를 읊는다는 생각으로 표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춘에서 현재 성가무단 조선무용교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 선생은 이번 의정부시무용단에게 작품 전수를 계기로 무대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의정부시무용단 이미숙 단장은 "어떻게 모신 만큼 단원들이 충분히 전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각기 다른 곳에서 전제해 온 민족춤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급식지원아동 외식하는 날

강희국 씨 방학 맞아 삼겹살 등 점심 제공

의정부시 중앙동사무소(동장 신현영)는 지난해 12월30일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독지가의 후원으로 급식지원에 받고 있는 아동 30명에게 겨울방학을 맞아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점심을 제공했다.

이날 외식행사는 평소 아동들의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던 거머토중

구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강희국 씨가 방학을 맞아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들을 본인의 식당으로 초대하여 삼겹살과 돼지갈비를 푸짐하게 차려 주었으며, 특히 소홀함 없이 정성껏 아동들을 대접했다.

강희국 씨는 "어려운 아동들에게 조출한 점심 한끼라도 대접해 주고 싶었는데 이제야 실천하게 되었다"며 좀 더 일찍 초대하지 못한 아쉬움을 전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의정부시 중앙동사무소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독지가의 후원으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 30명에게 겨울방학을 맞아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점심을 제공했다.

의정부시 택시 심야 자율운행 실시

의정부시(시장 김문원)는 지난 1일 00시00분을 기하여 심야시간인 00시00분부터 04시00분까지 택시부제를 해제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부 관내 택시가 1천311대로 운행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에 택시를 타고자 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심야 택시자율운행실시로 택시운행대수가 적은 심야시간에 택시대수를 늘려 시민들이 심야 시간대에 교통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또한, 심야 자율운행실시로 인하여 심야시간에 운행할 수 있는 택시대수가 346대가 늘어나게 되면 심야시간 시민들의 바쁜 귀가 길에 몰염치한 택시기사들의 부당요금, 승차거부 등의 행태가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최고급 합지생산전문업체

장원사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
고객이 만족할 만한 제품
바로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한솔드라이합지 전문

각종 싸바리 BOX 합지 1천톤 항시 보유

보유시설 시스템

- 자동합지기
- 자동도무송기
- 수가공전문
- 반자동 도무송기
- 자동접착기 등
- ※ 합지 1천톤 항시보유

